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5. 4(목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공공장소 테러 대비를 위한 '마틴法' 초안 발표
 - 5.2 영국 정부는 공공장소 內 테러 위협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자에게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'마틴法'* 초안을 발표, 同 법안의 공식 상정에 앞서 내무특별위원회 사전 입법 조사를 받을 예정
 - * 英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美 가수 공연 직후 발생한 자살 폭탄테러로 사망한 마틴 헤트 등 피해자 22명을 추모하기 위해 命名
- EU, 유튜브·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
 - 4.26 언론은 EU가 허위 정보나 불법·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구글·유튜브·페이스북·인스타그램 등 빅테크 기업 19개를 디지털 서비스법(DSA)*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였다고 보도
 - * 테러·인종차별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오는 8.25부터 적용 예정이며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% 과징금을 부과

미 주

- 브라질 법원, 네오나치 수사 관련 '텔레그램' 일시차단 명령
 - 4.26 법원은 네오나치 활동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'텔레그램'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시적 차단을 명령하고 하루 100만 헤알(약2억6천만원)의 벌금도 부과
 - * 네오나치 회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폭발물 제조법, 살인 방법 등을 공유
- 美 유권자 중 절대다수 총기규제 강화 찬성
 - 4.29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 美 유권자의 87%가 총기 구매자 범죄기록 조회·총기구매 대기기간제도·총기구매 가능연령 상향 등 다양한 총기 규제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
 - ※ 美 비영리재단 총기폭력아카이브(GVA)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최소 172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부언

아 · 태평양

○ 인도, 테러활동 악용 14개 모바일 메신저 앱 차단

- 5.1 언론은 인도 중앙정부가 잠무카슈미르 지역 테러단체에 의해 △테러 선동 △지지자-현장요원間 통신 △파키스탄으로부터의 메시지 수신에 활용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앱 14개를 차단하였으며, 대부분이 익명성을 제공해 테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

○ 파키스탄, 탈레반의 아프간 再집권 이후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 증가

- 4.26 언론은 파키스탄 정부의 대테러작전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탈레반 (TTP) 등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증가*하고 있으며, 전문가들은 탈레반의 아프간 再집권('21.8月~)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

* '21년 292건 → '22년 643건 → '23.1~4월 436건의 테러 발생

※ 아프간이 극단주의 세력의 新근거지가 되면서 인접국인 파키스탄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

중 동

○ 이스라엘, 이슬라믹 지하드 고위간부 교도소 內 '사망' 발표

- 5.2 언론은 이스라엘 교도소에 테러선동 등으로 수감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간부 「아드난*」이 斷食 86일만에 사망하자, 지하드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을 예고했다고 보도

* 同人은 지난 2월 수감 후 식사·진료 등을 거부하며 투쟁해왔으며, '15년에도 이스라엘의 행정구금(6월단위 연장)에 항의하며 55일간 斷食한 전력 존재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軍, 대테러 작전으로 테러리스트 50명 사살

- 5.1 나이지리아 육군은 보르노 및 잠파라 지역에서의 대테러 작전 (작전명 : 하딘 카이)을 통해 50명의 테러리스트를 사살하고 130명 이상의 테러 관계자들로부터 항복을 받았으며, 지난해 납치되었던 인도주의 구호요원도 구출했다고 발표

※ 軍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테러 작전으로 테러리스트들의 항복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

호주 포트아서 대형 총기 테러 사건

- '96.4.28 호주 태즈메니아州 관광도시 포트아서에서 「마틴 브라이언트」(男, 25세)가 무차별 총기난사를 자행, 3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
 - 同人은 반자동·자동소총 2정으로 카페와 인근 주차장에서 연쇄 총기난사 후 자택으로 도주하였으며, 경찰과 대치 후 다음날 체포
 - 호주 법원은 同사건을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, 同人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
 - ※ '02.2 同人은 교도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실패한 후 현재까지 복역中
- 同 사건 이후 「존 하워드」 호주 총리는 △반자동 소총·산탄총 개인 소유 제한 △단일 총기면허제도 도입 등 '국가총기협정'을 제정
 - ※ '국가총기협정' 제정으로 총기 환매 프로그램 및 총기 등록제도·총기판매 대기기간제도 등 자동·반자동 무기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확립
- 한편, 퀸즈랜드州를 포함한 일부 州정부들은 새로운 총기 관련 법령에 반대하였으나, 정부와 언론은 총기규제를 지지

<호주의 테러경보 단계>

- (조정기구) 호주 보안정보부(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, ASIO)가 안보위협을 평가하고 테러경보 수준을 결정하는 기구

■ (경보단계)	CERTAIN	공격 가능성이 확실하고 임박한 단계
	EXPECTED	공격이 예측되는 경우
	PROBABLE	공격 개연성이 있는 단계
	POSSIBLE	공격 가능성이 있는 단계
	NOT EXPECTED	테러 위협이 없는 단계